

글로벌 리포트

담수생물 및 생물 관련 분야의 글로벌 동향 및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ABS 해외동향II

프랑스 정부 연구 기관 생물해적 고소(biopiracy accusations)에 휘말려

지난 소식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를 통해 각 나라와 기업은 유전 및 생물자원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본 소식에서는 지난번에 이어 해외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이아나 지역 공동체는 프랑스 마르세유 개발연구원(The Institute for Development Research, IRD)에 전통 약용 식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의약품 개발을 도왔는데요. 이 후 지역 공동체에 아무런 통지 없이 이와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서 논쟁의 불을 지피게 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연구원들은 Kali'na, Palikur, Creole의 지역공동체들을 인터뷰한 후에 말라리아에 대응한 전통적인 치료제인 퀴시아나 나무(Quassia amara, 중앙 및 남아메리카 원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 종으로부터 화합물 SimalikalactoneE (SkE)을 분리했습니다. 이 후 2009년 논문에서, 동물 실험을 통하여 중남미의 이 종으로부터 분리한 화합물 SkE가 항 말라리아 활성이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2015년 3월에 가이아나 공동체에 어떠한 사전 통고 없이 유럽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례를 두고 캐나다 오타와대학의 법학자인 Thomas Burelli는 전형적인 생물해적사례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Burelli 및 인권단체인 "Fondation Danielle Mitterrand France Libertes"는 이는 식민지 행동을 영속시키는 것이라며 개발연구원을 비난했으며 이러한 행동은 비도덕적이며 지적재산권 규정에도 반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Burelli 및 인권단체는 유럽특허청에 이와 관련된 특허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개발연구원은 처음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방어 전략을 선택했는데요. France Libertes의 Emmanuel Poilane에 보낸 서한에 Jean-Paul Moatti 국장은 특허출원에 대해 위반이 있었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고 공중보건이슈에 대한 오랜 연구 노력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이아나 지역 위원장에게는 과거에 수행했던 인터뷰는 약용식물 이용에 대한 제안을 위한 의도였다고 했으며 이 때 특허가 가능한 의약품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2일에 개발연구원은 가이아나 지역의 전통지식을 통해 개발된 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경우 공평한 이익공유 보장을 위해 지역에 적절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연구자들은 전 세계 어느지역에서든 발견되는 생물자원을 아무런 제약 없이 활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전 및 생물자원에 대한 각 나라별로 권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http://www.sciencemag.org/news/2015/03/french-institute-agrees-share-patient-benefits-after-biopiracy>

글 다양성보전연구팀 배미정

출처: www.sciencemag.org/news/ 및 ABS산업지원센터, www.abs.kr